GIST-한국기상산업기술원(KMI), 기상·기후·에너지 융합연구 위한 MOU 체결

- 20일 GIST서 업무협약 체결... 기상·기후 데이터 활용한 에너지 관련 공동연구
- 전력망·에너지저장장치 운영 연구 및 국가·지역 연구개발사업 공동 기획
- 지역특화 실증·기술사업화 협력... 월 1회 실무회의 통해 공동과제 발굴



▲ GIST-한국기상산업기술원(KMI) 업무협약 기념 단체 사진. 11월 20일(금)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상·기후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(왼쪽부터 네 번째) 임기철 GIST 총장, (왼쪽부터 다섯 번째) 황명균 한국기상산업기술원(KMI) 원장.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**11월 20일(금) 11시에 GIST 행정동 대회의실**에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**한국기상산업기술원**(KMI·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)**과 기상기후데이터 및 에너지기술의 융합연구와 산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**(MOU)**을 체결**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협약식에는 **GIST 측에서 ▲임기철 총장 ▲이광희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전략연구사업단장 ▲강홍규 차세대에너지연구소 부소장이, KMI 측에서 ▲황명균 원장 ▲김정현 산업지원본부장, ▲방철한 산업정책실장**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'한국기상산업기술원(KMI)'은 **기상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**하고, **기상정보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**될 수 있도록 돕는 **기상청 산하 공공기관**이다. 기상기후 기술개발과 기상기업 지원, 전문인력 양성,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

수행하고 있다.

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과 연구·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**기상기후데이터와 에너지기술의 융합 연구를 추진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양 기관은 **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해 태양광·풍력 등 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, 운영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공동 연구**할 계획이다. 또한 날씨 변화와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**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영 방안을 연구**하고,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기술도 모색한다.

아울러 **인공지능**(AI)**을 활용해 기상기후데이터와 에너지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기술**을 발굴하고,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·분산에너지·에너지 전환 분야의 국가·지역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기획한다.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**지역특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, 개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지원**에도 협력할 예정이다.

협약에 따라 **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와 KMI 산업정책실은 월 1회 실무회의**를 열어 공동연구 과제와 협력사업을 발굴·기획하고, 각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**공동 세미나와 기술교류회**를 개최하고, **전문가 교류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협력**할 계획이다.

황명균 KMI 원장은 "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**기상기후데이터는 에너지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**을 하고 있다"며 "이번 협약을 계기로 **GIST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확대**하고, **기상기후데이터가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**하겠다"고 말했다.

임기철 GIST 총장은 "이번 협약은 **기상기후데이터**와 에너지기술을 연계해 **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대응**하는 뜻깊은 출발점"이라며 "GIST의 에너지 분야 연구역량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기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**실질적인 공동연구 성과를 창출**하고, **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**하겠다"고 밝혔다.